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개일부터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새벽5시부터 주기도문을 선포-

2001년 사명자대회가 지난10월7일 시작하여 1개월이 넘도록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사도가 되자' 라는 표어를 걸고 달려왔다.

다니엘 기도(열열이 3분간 기도)로 매일 오전10시, 오후10시 2번 각각3분간 전교인 동시 기도 그리고 24시간 연속기도와 금요철야기도, 태신자 전도와 70인 전도

대원으로 전도하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

내일(12일)부터 24일(토)까지 매일 새벽5시에 주기도문을 본문으로 말씀이 선포되며 강단은 이종윤 목사가 맡는다. 찬양대와 주력부대가 이미 발표된바 있어 저들의 분투가 요구된다.

아담과 이브의 만남

-12월29일(토)오후3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강남교회 산하 교회 청년들을 초청하는 모임이 언말을 기해 마련되었다. 우리교회 교육3국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이성호 교수(연세대)가 '바람직한 신세대의 새 인간상'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하고 자기소개 및 소그룹으로 만들어 교제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미혼남녀의 많은 신청바란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총회일정 잡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연령	날 짜 시간	장소
빌립남선교회	(30~39)	11월 15일 오후7시30분	104호
안드레남선교회	(40~44)	11월 25일 오후1시	육탑층
베드로남선교회	(45~49)	11월 26일 오후7시	104호
바울남선교회	(50~54)	12월 1일 오후4시30분	502호
엘리아남선교회	(55~59)	11월8일 오후7시	602호
모세남선교회	(60~64)	11월24일 오후5:30	503호
아브라함남선교회	(65이상)	11월 16일 오후6시	101호
도르가여전도회	(30~39)	11월20일 오전11시	402호
루디아여전도회	(40~44)	11월20일 오전11시30분	VIPS
비비아여전도회	(45~49)	11월13일 오전11시	104호
마리아여전도회	(50~54)	11월7일 오후1시	602호
에스터여전도회	(55~59)	11월18일 3부예배후	702호
한나여전도회	(60~64)	11월18일 3부예배후	801호
사라여전도회	(65이상)	11월 21일 오후1시	801호

태신자 초청의 날

11월18(주) I II III부 예배 시에

우리가 그 동안 마치 복중에 태를 가진 어머니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여온 태신자를 초청하여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11월18일(주)로 다가왔다. 우리는 이날에 우리의 열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태신자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내실 줄 알고 기도하며 준비한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 및 면접

-11월 16일(금), 17일(토) 저녁7시에 602호실-

우리교회의 일꾼으로 봉사할 2002년 신임 서리집사의 교육 및 면접일정이 발표되었다. 11월16일(금)과 17일(토) 양일간 저녁 7시에 602호에서 교육 및 면접을 받고 12월 첫주 주일예배시간에 임명받게 된다. 해당되는 성도는 본인의 일정을 조정하여 참여가 가능한 날 교육 및 면접을 받기 바란다.

2002년 성경암송대회 범위 확정 - 요한2,3서 유다서-

해마다 종교개혁기념주일을 전후하여 시행되는 성경암송대회 2002년도 범위가 확정되었다.올해에 이어 요한2.3서 유다서 전장이 된다. 많은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10years round members

지난 10년간 20학기의 목회자 세미나에 빠짐이 없이 참석한 10years round members 20명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학 번	이름	교회	학 번	이름	교회
92-0183	김진열	민족	92-0626	정경화	백둔
92-0303	박태정	세예루살렘	92-0285	박정수	신성
92-0304	박태홍	갈보리	92-0736	최중규	진리
92-0351	손명철	노량진침례	92-0713	최규석	큰빛
92-0381	신지훈	아일랜드	92-0288	박정호	양매
92-0410	오병훈	초대	92-0389	안기호	낙원
92-0476	이만호	인천총현	92-0501	이 역	부활
92-0682	조용례	소명	92-0601	장병혁	성민
92-0700	차명숙	동북	92-0313	배영대	신성
92-0704	차정순	푸른초장	95-0302	허진서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금요기도회 주관부서

월 일	교 구	전도회	교회학교	찬양대
11.16(금)	7,8,9	모세, 한나	유년부, 초등부	베들레헴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70인 전도대 주력 부서

월 일	교 구	남선교회/여전도회
11.17(토)	9,10교구	바울, 마리아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새벽기도회 주관부서

11.12(월)	11.13(화)	11.14(수)	11.15(목)	11.16(금)	11.17(토)	11.18(주)
1.2교구 할렐루야	3.4교구 임마누엘	5.6교구 베들레헴	7.8교구 호산나	9.10교구 시온	11.12교구 가브리엘	1.2교구 할렐루야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유아부	장년부
초등부	도르가	안드레	루디아	사랑부	유치부	바울
빌립	홍보분과	전도분과	기도분과	베드로	비비아	재정부
진행분과				교육분과	안내분과	

대학부·청년부 총회 열다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는 지난 11월4일(주) 총회를 열고 2001년을 결산하고 내년도 대학부, 청년부를 이끌 임원단을 선출하였다.

이날의 대학부 회장에 김용호, 부회장 신혜영이 각각 선출되었다. 청년부 총회에는 투표를 통하여 회장에 노창훈, 부회장에 나소연을 선출하였다.

성경대학/주부대학/경로대학 종강식 갖는다

제10학기 성경대학이 급주중 각 과목별로 종강을 하게 된다. 이번 학기에는 아모스반, 고린도후서반, 교사대학, 음악교실, L.T.C, 전도학교등이 개설되어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좋은 기회로 자리매김하였다. 제2기 주부대학은 13일(화) 김광신 장로의 '부부싸움 제언'이란 강의를 마지막으로 종강을 하게 된다. 제2기 주부대학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재교육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제3기 경로대학은 지난 8일 김영한 박사를 모시고 노년기 신앙생활이란 제목의 특강을 듣고 종강을 하였다.

20학기 목회자 세미나 종강

제20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내일(12일) 강의를 마지막으로 종강을 하게 된다.

그 동안 10년간 쉼 없이 계속되어온 목회자 세미나는 이번 수강생이 지난 학기 보다 34%가 증가되어 강의실로 사용된 웨스트민스터 홀이 가득 차는 은혜 중에 진행이 되었으며 10년간 본 세미나에 한번도 빠짐이 없이 참석한 10years round table members가 20명이나 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는 전적으로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의 맘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이다.

이사야서 강해

고난 중에 보여준 봉사

(이사야 52장 13 - 15절)



이종운 목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섬기는 삶을 불명예가 아닌 명예로 생각해야 합니다. 높아지고 대접받는 자리만을 찾고 있는 오늘의 세상에서 섬기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가치관의 혁명입니다. 섬기되 특별히 인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인생의 본분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명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자 인간 중에서는 아무도 죄 값을 받을 존재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시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큰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1. 메시아는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13절)

"보라 내 종이 행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13절)

하나님은 메시아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내신 자의 생각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고 섬기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종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이것이 성탄 정신입니다. 섬기는 정신, 대속적 희생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빌 2:5-7).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섬기는 삶을 불명예가 아닌 명예로 생각해야 합니다. 높아지고 대접받는 자리만을 찾고 있는 오늘의 세상에서 섬기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가치관의 혁명입니다. 섬기되 특별히 인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인생의 본분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명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라고 말한 것은 신자에게 준 말입니다.

신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며 이와 같이 섬기는 일은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겸손한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듯 우리도 겸손히 섬기는 봉사의 자리를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바르게 못할 때 우리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가장 천박한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가장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고 가장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치인들은 흔히 자신들이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백

성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오만 방자히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섬기는 자리에서 희생적인 봉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무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도 봉사를 할 때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희생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2. 종으로서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과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14절)

하나님은 억지로 섬기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좋은 봉사는 고된 훈련을 감수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착한 종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세례를 받거나 교회의 직분을 받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희생적 대가를 지르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을 너무나 참으셔서 용모가 변할 정도였고 시련을 참으시어 건강 한 그의 모습에 깊은 상처가 남겼습니다.

'타인 보다', '인생 보다'라는 말은 미천해지신 그의 모습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은 이가 인생 중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마땅하거나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하여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허다한 고난과 깊은 시련을 겪으심으로 성도들에게 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행하는 일이고 그것을 세상에서 구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종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서 받는 고난을 기쁘게 감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3. 고난의 봉사에는 복된 존귀함이 뒤따르게 된다(13, 15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13절).

큰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마침내 존귀한 자가 되실 것입니다. '행통하리니'는 '지혜롭게 행함'(히 5:8)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사명을 따라 수난 받으실 것

을 말씀한 것입니다.

'내 종이 행통하리니'는 메시아가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 받으실 것을 말하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과 승천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한 대가는 그가 존귀하게 되는데서 지불되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보상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그것의 몇 배나 되는 상급을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천대받고 희생하고 고난을 받을수록 천국에서 우리의 위치는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고난 없이 자기 영광만을 취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비록 훗날의 상급이지만 그 훗날을 위해 고난의 봉사를 선택하고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15절).

'놀라다'는 히브리어로 '얕제'라고 읽으며 '피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많은 사람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려고 자기 피를 뿌리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는 열왕들이 예수님을 숭배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었지만 하나님으로서 다시 존귀한 자리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는 인류가 아직 알지 못했던 속죄의 요모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을 말합니다.

임금들이 메시아를 숭배하게 된다는 것은 그 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진리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그러므로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종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기쁘게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도 높임을 받았듯이

참 봉사자에게는 존귀함의 상급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2년 구역일꾼 편성안

교구, 디락방	디락방장	부디락방장	권찰
1-1	하영수	윤명규	송종석
1-2	김은태	김복숙	이양규
1-3	임옥균	조동완	장현두
1-4	최양진	이종열	홍일성
1-5	박두영	김현영	정호택
1-6	이미숙	박재숙	전외숙
1-7	박현영	안영애	안영애
1-8	김인숙	김복희	서춘희
1-9	임승자	권지향	장기숙
1-10	최현인	최현인	정경미
1-11	전영자	전영자	천인숙
1-12	이규희	강윤숙	이정남
1-13	박정순	노명자	엄지영
1-14	최희재	강신실	유성임
1-15	김연숙	전종순	이순삼
1-16	김영식	박복순	김만자
1-17	전아미	박정순	박정순
1-18	이영희	박정순	이미숙
1-19	김현숙	박춘자	유기순
1-20	이중순	박종녀	한재복
1-21	김신영	오신옥	임미자
1-22	이순희	고광미	진교숙
1-23	이인숙	박정희	우경자
1-24	이경선	김일순	정승자
1-25	박현숙	한춘일	홍정희
1-26	김정애	채지수	김인숙
1-27	조정식	윤태욱	정진섭
1-28	김광룡	이근홍	정인주
1-29	신용식	김태수	권혁우
1-30	정춘경	박성근	이우진
1-31	정동호	목재만	박성호
1-32	조영자	김영옥	최예순
1-33	고완순	현기옥	강영자
1-34	김은희	하옥봉	배현주
1-35	박영자	김명희	노임숙
2-1	최규조	장 덕	
2-2	홍창배	민충현	
2-3	전기섭	김광철	
2-4	최홍렬	유근중	
2-5	최형렬	유남식	
2-6	허희철	김병호	
2-7	최통애	최무순	
2-8	최양혜	이관모	
2-9	김수호	주의현	
2-10	허현숙	김현주	
2-11	주정의	최견숙	조신자
2-12	김용숙	김영심	조미환
2-13	오충례	최영순	
2-14	최금래	김양금	임인자
2-15	한정아	이갑연	고범란
2-16	홍승자	김혜란	
2-17	김찬진	박영실	주경자
2-18	이신정	박경자	
2-19	노순례	정유진	강은경
2-20	안정옥	송금자	
2-21	배은희	윤순옥	
3-1	정병두	김명신	김상석, 최용철
3-2	오정수	이찬호	오유식
3-3	이경구	이우상	김영주
3-4	우지원	최임수	이학주
3-5	손병석	윤성남	탁경준
3-6	이재순	이재봉	고윤화
3-7	여영숙	고정숙	송동신
3-8	배정자	김정순	황정아
3-9	최정순	이동규	이영희
3-10	남태순	김연옥	김유경
3-11	김명심	김우숙	이찬희
3-12	김현정	김영옥	최현자
3-13	임인숙	김정두	기원정
3-14	박분옥	노인숙	장인숙
3-15	김상옥	정옥희	
3-16	이은숙	우경자	이경자
3-17	심외숙	곽선자	김종자
3-18	노인숙	김인순	양용자
4-1	김태기	김규태	김인수
4-2	조유식	김금준	신동천

교구, 디락방	디락방장	부디락방장	권찰
4-3	이보우	이계홍	강석우
4-4	박희서	황경희	김재채
4-5	김재술	최중희	이화자
4-6	김종윤	김춘재	김세재
4-7	윤문자	오영숙	김계숙, 권순
4-8	김혜경	강영자	문형순
4-9	이영희	김혜아	최문주
4-10	이영희	이현주	정경자
4-11	박우옥	홍광숙	정천수
4-12	장오옥	임영미	조은주
4-13	이승희	김혜아	박민숙
5-1	이종영	이광열	최상철
5-2	이상태	김종근	조근환
5-3	성준경	한길동	김동언
5-4	최익인	박수남	김예언
5-5	손재겸	김초일	김영란
5-6	박영옥	최인정	조은경
5-7	김영희	최미아	박은순
5-8	김희숙	박창휘	원정순
5-9	최소희	장낙희	박덕순
5-10	김남숙	이영주	김동수
5-11	방승희	최혜순	손안심
5-12	엄금순	김경희	오환실
5-13	김정희	김남옥	오규자
5-14	이학영	유관숙	김지용
6-1	노승성	송윤수	송상준
6-2	장영일	박성현	김원용
6-3	유윤상	조철기	박정수
6-4	민준구	박정민	김시환
6-5	정정숙	김영란	유종숙
6-6	김규희	김은숙	노정숙
6-7	윤숙희	이영옥	권윤경
6-8	김경옥	김경희	최정희
6-9	김윤자	채덕희	강동옥
6-10	김정란	김시라	한혜자
6-11	이은진	김성은	성수영
6-12	이영희	황보추자	민순구
6-13	인대진	이현정	노창훈
7-1	이영기	윤윤식	김재성
7-2	김영준	이상호	이태원
7-3	박두호	서상근	홍성근
7-4	허정자	박태희	박윤혜
7-5	한성옥	박광순	정미화
7-6	함은희	유순섭	윤도희
7-7	이영숙	김희진	김영순
7-8	이부자	공진문	임순자
7-9	김치순	송순옥	이상호
7-10	김예란	최정희	전외숙
7-11	김승행	최래옥	김영례
7-12	오영자	남영주	왕경애
7-13	남영주	권태희	차인혜
7-14	임윤자	유영숙	이길재
8-1	홍정주	김광옥	김인관
8-2	정동학	박용봉	고영철
8-3	서영희	이영자	장애자
8-4	제오복	강명신	김현주
8-5	강희자	남미희	권정숙
8-6	김정윤	박이준	박종례
8-7	한춘홍	김명숙	최희숙
8-8	김영정	박정옥	심승희
8-9	여현진	유병옥	최금자
8-10	강경선	김복순	서필영
8-11	강명신	노태희	권재현
9-1	윤봉중	이재원	
9-2	서춘식	한중우	권오준
9-3	이남성	유 신	염길순
9-4	전용순	신영순	정선오
9-5	조상희	박순단	
9-6	황노전	김진숙	
9-7	장영순	이상애	안성희
9-8	이금남	황재연	
9-9	김희진	김명화	
9-10	김순자	이은자	
9-11	이점숙	이희성	이미리
9-12	전미애	김윤숙	
10-1	윤찬오	이복규	권정환

교구, 디락방	디락방장	부디락방장	권찰
10-2	이관규	김정준	민중호
10-3	이완형	김규성	진중근
10-4	권정환	이기숙	
10-5	홍재식	심명옥	
10-6	이양숙	양주화	이순영
10-7	김선영	박정순	노옥자
10-8	이현순	이혜선	안분선
10-9	최길옥	정현숙	
11-1	노문환	이준수	유태오
11-2	박철환	오지철	이우상
11-3	김사무엘	이영조	김중운
11-4	윤숙희	송금자	
11-5	김정화	이경희	
11-6	김남순	천정화	백인숙
11-7	하 숙	신현이	김영숙
11-8	정연택	조정옥	신정순
11-9	정수진	김미선	김희정
11-10	이영자	허 숙	
11-11	송혜숙	유숙인	
11-12	이옥희	김정희	김혜영
11-13	송미자	이명신	오성애
12-1	이민생	송정식	정세형
12-2	임상현	김대용	홍종표
12-3	오광환	오민세	이인숙
12-4	정의순	선연자	김현숙
12-5	박경희	한인숙	박윤정
12-6	박명석	이명희	조신영
12-7	서희숙	김선희	김정희
12-8	이재윤	나기태	정의자
12-9	이인선	신동기	이정연
12-10	문예진	김숙자	이미선

-태신자 명단- (2001년 11월 11일 현재)

조경훈 조은행 장동숙 조성혜 서효제
 지경숙 김효진 유효숙 김근희 김태자
 왕종숙 이희숙 김기철 형소남 고기성
 엄은진 성인경 고범석 김정길 김복순
 이가복 김인석 김경순 홍성원 김영순
 박동철 임명자 박지혜 박지윤 박범신
 장형숙 김대용 이상근 김필순 김상용
 이현우 김영실 김진주 홍현우 김미숙
 강명구 전용재 전완식 전민선 진성혁
 홍성호 함신녀 정승희 장영구 장우상
 조국창 변정례 유영선 염복애 오영록
 이경순 전순자 황진순 채 황 이희원
 서신석 홍성태 김성범 최진철 최진석
 이성민 정용수 고오석 조연성 송정근
 김애경 송지운 송서운 박준용 조호규
 김일수 이우진 김사운 이영종 김영자
 이준원 장선미 김은준 권태형 이계상
 이숙영 송애나 김준태 유삼조 이경남
 유호순 손동기 엄운경 김인호 김성옥
 황옥녀 김철기 김형남 김홍남 김모초
 김재중 조영숙 윤순진 노준수 박현일
 박성희 박경숙 정은주 김순근 강희성
 천무자 장원희 이화덕 표영임 김승이
 김승민 이기찬 정만기 임미정 이광우
 정은영 이문영 최보학 천인선 윤옥남
 정현오 김상복 (다음호에 계속)

성경암송대회 수상자들의 소감

이민용 (고등부)

김소연(유년부)

성경 암송 대회 참가 권유를 받고, 처음에는 그나마 부족한 자유시간을 더 빼앗기는 것이 불만이었지만, 어머니의 권유는 좀처럼 거역할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 인터넷에서 뽑아 주신 큰 활자의 요한 1서를 지하철 안에서 한 절 씩 외워가면서, 나도 모르게 말씀에 빠지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 빛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

지금 와서 내가 회생시킨 나의 자유시간에 대하여는 조금도 후회가 없다. 오히려 귀한 말씀들을 확실하게 심어 주시고, 항상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인 유아부 때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매번 성경 암송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경 읽기가 저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간혹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 대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안다. 누구나 시간과 정성만 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는다. 아쉬운 것은 성경 암송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거의 정해져진 것 같다. 성경 암송을 하다보면 평소엔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성경을 자주 접하게 되어서 좋고, 또 한번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될 때도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이런 성경 암송에 더욱 많은 성도분들이 참여해서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끝으로 격려 해주신 선생님들과 마음 졸이며 지켜 봐 주신 부모님께 감사 드린다.

그런데 올해에는 성경 암송이 쉽지 않았습니다. GOD나 신화, HOT의 노래와 춤들이 성경보다 저에게는 더 재미있었고 귀에도 잘 들어오고 버디 버디로 친구들과 채팅하는 재미에 또 홈페이지를 친구들과 보다 예쁘게 꾸미기 위해 컴퓨터 앞에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서도 성경은 점점 멀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을까...; 오늘은 학교 숙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성경암송을 게을리 했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암송을 대회를 얼마 안 남기고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없었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고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가 요한일서를 5장까지 모두 암송할 수 있게 해주셨고 상까지 받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칭찬도 많이 받게 해주셨고요, 세상의 것들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늘 가까이 하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20학기 목회자세미나 수강자 지난 학기보다 34% 증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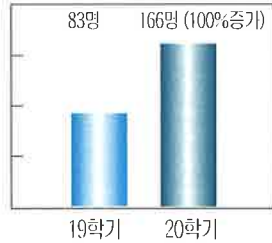
- 신규 수강자는 19학기에 비해 무려 100%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 -

20학기 현재 총 등록자가 4790명이며 그 중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수료자만도 868명에 이르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세미나...!!!

과거와는 달리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 사회가 혼탁한 상황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10년 이상을 지속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년간 총 20학기를 진행해오면서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도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현대 사회의 목회 방향을 새롭게 조명해온 우리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 세미나는 더욱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부 목회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들이 특정 교회 등의 성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개 교회에 적용시키는 방법론에 치중하기도 하나 과연 어느 한 곳에서 성공하였다는 프로그램이 실제 목회현장에서 모든 교회에 적용되어 성공한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인 상황에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세미나는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목회자들에게 지속적인 말씀공부와 신학적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문적 지고성과 영적 성숙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회 성장의 한 요소임을 제시 한 것도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목회자세미나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학기과 20학기 신규 등록자 비교표

이 같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목회자세미나의 이번 20학기는 19학기에 비해 수강자가 133명이 늘어난 521명으로 전체적으로는 3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수료자

대열에 들어서도록 합니다.

그러면 태신자 초청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도는 반복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 전도를 받고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여러 차례의 전도를 받아야 겨우 교회에 얼굴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거부하였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된 권유와 전도를 하여야 합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전도됩니다.

둘째, 인간관계는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은 친분을 통해서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미 전도는 된 것입니다. 인도하고자 하는 태신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15% 이수자 19%의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100%의 증가율을 보인 신규 수강자들의 증가율은 매우 주목된다.

특히 그간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여타 목회자들을 위한 각종 세미나의 참석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좀체 이 같은 추세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20학기의 신규 수강생의 증가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다. 김시환(편집부)



19학기 대비 20학기 수감자 비교표

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웃과 직장 동료 친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구원의 역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셋째, 인도대상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내가 인도할 수 있는 태신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그들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가까운 사람을 중심으로 전도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 ①가족, 친구, 친지, 동료, 이웃
- ②교회에 한번쯤 나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
- ③환경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졸업, 출산, 이혼, 별거, 죽음 등)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6(금) 서울 강남노회위원회를 소집한다.

☞ 목회자세미나 간식제공: 김복승 집사 김현숙 집사 가정

☞ 목회자세미나 식사제공: 신용식 집사 김신영 집사 가정

☞ 목회자세미나 떡제공: 오정수 장로 이영희 권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N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제1권사회장 신임사-

10년 전을 되돌아봅시다

백영의 권사(11교구)

10년전 서울교회의 권사회는 이옥녀 권사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교회의 방침에 따라 조직되어 첫 회장이셨던 이신일 권사님을 선두로 10여명의 중경회장들의 희생적 노고가 너무나 크셨습니다. 음침한 지하실에서 더위와 추위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을 격정하시면서 눈물의 기도회를 진행하셨던 전회장님들의 희생적 봉사에 진정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새 교회를 주실 때까지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않겠노라 하시며 기도와 기쁨과 헌신과 감사로 온갖 귀찮은 일을 도맡아 하시던 권사님들의 모습에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회를 통해 주신 선물이 있다면 10

년 동안 늙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 건강과 젊음으로 우리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매년 20주씩 10년을 새벽기도 후 김밥 준비하느라 찬송하며 아이들처럼 웃으며 즐겁게 기쁨이 넘쳐 그 좁은 공간에서도 옥상에서도 더위도 추위도 아랑곳없이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과 같이 10년이 하루가 되었습니다.

넓고 깨끗하고 환황한 새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2권사회 권사님들의 앞으로 더 많은 봉사가 은퇴한 우리들의 뒤를 이어 줄 것을 바라면서 제1권사회 회장의 바람이라면 은퇴한 우리와 함께 은성도님들이 베풀어주시는 사랑을 받으며 은빛으로 찬양하며 묵묵히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곱게 살다가 서울교회의 작은 초석으로 성장하는 교회역사의 한 page를 장식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1 사명자 대회 7대기도제목을 위하여
2. 새로 임명될 2002년도 일꾼들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